

‘문화의 일상화’ 모토... 시민 동아리 자생 돕는다



이제는 문화시민

선진예술교육현장 탐방

(6) 성남아트센터

▼뮤지컬 '남한산성', '미스 사이공', 성남아트센터 전경.



“파도가 부서지는 바위섬/인적없던 이곳에/세상 사람들 하나 둘 모여들더니(중략)/바위섬 너는 내가 미워도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다시 태어나지 못해도 너를 사랑해.”(가수 김원중의 ‘바위섬’ 중에서)

지난달 중순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자리한 성남아트센터 앙상블 시어터 2층 교육장. 문을 열고 들어서자 40여 명의 수강생들이 피아노 반주에 맞춰 대중가요 ‘바위섬’을 부르고 있었다. 매주 화·목요일 2차례 진행되는 ‘하모니 앙상블’ 강좌. 평소 가곡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3개월 과정 동안 국내외 가곡들을 배우는 시간이다.

수강생 대부분이 60~7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지만 노래를 부르는 표정에는 열정이 가득했다. 소프라노와 알토, 바리톤 파트의 화음이 어우러진 노래를 듣고 있으니 취재자 광주에서 성남까지 3시간 동안 달려온 피로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듯했다.

이들의 연습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 30분 동안 맨 뒷자리에 앉아 ‘에델 바이스’ ‘영원한 사랑’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선구자’ 등을 감상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들의 노래실력은 아마추어라고 부르기에 부족할 정도로 뛰어났다.

하지만 지휘를 맡은 성악가 박윤희씨는 노래 한 곡이 끝날 때마다 미흡했던 부분을 지적하며 이들을 독려했다. ‘알토 부분과 바리톤 부분이 너무 약해요. 내 노래만 듣지 말고 다른 파트의 소리도 함께 들으며 발전해야 해요.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는 1박자를 제대로 쉬지 않고 바로 치고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날 박씨가 수강생들에게 쓴소리를 늘어놓은 건 2주일 후에 예정된 공연 때문이었다. 성남 분당 차병원에서 환자들을 위로하는 무대를 열기로 한 이들은 최상의 공연을 선보이기 위해 한달 전부터 맹훈련을 해왔다. 이미 불우이웃 시설이나 요양병원 등에서 노래송씨를 과시한 적이 있지만 매년 새로운 무대를 위해서 역량을 갈고 닦는다.

사실 ‘하모니 앙상블’에 참여하는 수강생들 가운데 상당수는 젊은 시절, 성악을 전공했거나 교회나 성당에서 성가대로 활동한 경험을 갖고 있다. 생업 등에 밀려 자신의 취미를 살리지 못했지만 헌직에서 물러난 이후 얻게 된 시간적 여유를 이곳에서 보낸다. 이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맡겨 부를 수 있고 종종 이웃들에게 아름다운 노래를 선사할 수 있어 기쁘다.

교직에서 은퇴한 조준자(74·성남시 이매동)씨는 “평소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했지만 정년퇴임하기전까지는 생활이 바빠 시간을 내지 못했다”며 “1주일에 2~3번 수강생들과 함께 모여 노래를 부르고 공연 봉사를 할 수 있어 하루 하루가 즐겁다”고 말했다.

‘문화로 행복한 시민’, 바로 성남아트센터가 꿈꾸는 비전이자 미래다. 조씨 할머니처럼 시민들은 성남아트센터에서 예술에 대한 안목을 기우고 문화를 즐긴다.

성남아트센터는 여느 수도권 복합문화공간이나 서울의 대형 아트센터에 뒤지지 않는 체계화된 문화예술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무엇보다 장르별, 대상별에 따른 차별화 강좌가 감점이다. 감상·이론 아카데미, 음악아카데미, 미술·사진아카데미, 무용아카데미, 어린이 아카데미, 창의예술놀이·통 등이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다. 1년에 2차례 운영하는 100여 개의 강좌에는 현재 1000여 명의 수강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천여개 동호회 지원 ‘사랑방 문화클럽’ ‘보조금 지원’ 官 의존 풍토 개선 위해 발표 공간·장비·시설 등 간접지원 미술·무용·어린이·창의예술 놀이 등 장르·대상별 강좌... 체계적 교육도

행복한 마음 미술치료(Art Therapy), 태교 Art Therapy, 유화와 아크릴, 인체크로키, 현대미술, 디지털 사진장작 등 미술·사진 아카데미에서부터 클래식 기타 기초반, 플루트, 재즈반, 우리 가곡은 피아니스트, 하모니 앙상블, 즐거운 가곡교실, 성악 마스터 클래스, 첼로, 대금 등의 음악 아카데미까지 풍성하다. 어린이 아카데미의 경우 매년 여름방학 기간에 개설되는 어린이 여름예술 학교(월~금요일 오전 8시~오후 7시)를 비롯해 상상력을 높이는 놀이, 음악그리기(6~7세 대상), 초등성악, 어린이 발레, 초등바이올린, 피아노, 바이올린, 엄마와 함께

하는 유아미술교실(5세), 아트톡톡 미술관 프로젝트 등 40여개에 된다.

이들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는 부서는 문화사업부 아카데미. 팀장인 노상환(42)씨를 비롯해 3명의 전문인력 상·하반기로 나눠 100여 개의 프로그램을 이끌고 있다. 기초적인 감상과 실기 강좌에서부터 수준별 심화과정, 트렌드를 주도하는 전문강좌까지 다양하다. 일부 강좌의 경우 인근 타 도시뿐만 아니라 서울에서 원정 수강을 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10년째 문화예술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노상환씨는 “성남 아트센터가 수도권의 ‘빅3’이 공인장이 되기까지는 수준높은 콘텐츠와 문화예술교육이 큰 역할을 했다”면서 “아카데미의 역량과 내실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안으로 독립조직인 ‘성남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발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성남아트센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콘텐츠는 다름 아닌 ‘사랑방 문화클럽’이다. 지난 2006년 전국에서 최초로 성남시민들의 자발적인 문화예술동호회를 지원하기 위해 ‘문화의 일상화’를 모토로 출범했다. 약 1100여개에 이르는 문화예술동호회가 연습공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 착안해 160여 개의 문화공간을(이들에게) 무상으로 빌려주기 위해서다. 문화클럽 회원들이 모여서 연습하고, 발표할 수 있는 공간 인프라를 제공하고 필요한 장비나 시설을 빌려주는 일종의 간접지원 형태다. 과거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이 관(官)에 의존하는 풍토를 조성한다는 비판에 따라 동아리들이 자생적인 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촉매역할을 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그 결과 성남시민들은 사랑방 문화클럽을 통해 ‘문화가 흐르는 삶’을 누리고 있다.

사랑방 문화클럽은 지난 2010년 3월 ‘사랑방 오케스트라’라는 또 다른 형태의 문화클럽을 만들어 내는 등 성남시의 문화지평을 넓혀가고 있다. 특히 지난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전국 158개 기초시·군(광역시 제외)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2 지역문화지표 개발 및 시범적용연구결과’에서 영예의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이는 곧 문화도시의 성공이 화려한 축제나 빼어난 인프라가 아니라 문화시민들의 문화지수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성남=박진현 문화선임기자 jhpark@kwangju.co.kr

자생적인 문화예술 동호회를 지원하는 사랑방 문화클럽은 성남시민들의 문화지수와 자부심을 높여주고 있다. 1년에 한번씩 열리는 사랑방 문화클럽 축제 모습. (성남아트센터 제공)



시민의 문화허브 성남아트센터

세계를 지향하고

국제 수준 인프라·기획력·브랜드 파워
‘말려 연주회’ ‘미스 사이공’ 등 국내 초연

지역을 아우른다

문화유산 스토리텔링 뮤지컬·악극 제작
저소득층 오페라 무료개방 등 문턱 낮춰

지난 2005년 10월 개관한 성남아트센터는 서울의 내로라 하는 공연장들도 쉽게 엄두내지 못하는 ‘사건’들을 줄줄이 일으켰다. 독보적인 말려 교향곡 해설가이자 지휘자인 길버트 카플란의 ‘말려 연주회’를 비롯해 이반 피셔와 부다페스트 오케스트라·몬테카를로 발레단의 ‘신데렐라’·마에스트로 크리스티안 틸레만과 뮌헨필하모니 오케스트라·브로드웨이 ‘미스 사이공’ 등의 한국초연이 성남아트센터의 ‘작품’들이다.

이 같은 대형공연들을 유치할 수 있었던 힘은 외부 공연전문가들로 구성된 기획력과 지난 11년간 쌓아온 브랜드 파워다. 성남아트센터는 성남시가 지역민들의 고품격 문화향유공간을 위해 설립한 성남문화재단(이사장 이재명의 ‘패밀리’)다. 성남시는 예술의 전당, 세종문화회관, LG아트센터 등 서울의 명품공연장들에 뒤지지 않는 경쟁

력을 갖추기 위해 지난 2004년 공연계의 거물 이종덕씨(현 단국대 문화예술대학원장)를 초대 사장으로 영입한 데 이어 매년 18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예술의 전당, 세종문화회관 사장 등을 지낸 이 사장은 재임기간(2004~2010년)동안 ‘세계를 지향하고 지역을 아우른다’는 슬로건으로 세계 유수의 예술단체 한국단독 공연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여기에는 최첨단 시설을 갖춘 성남아트센터의 인프라도 한몫했다. 총 1600억 원이 투입된 성남아트센터는 국제적 수준의 오페라 하우스(1804석), 국내 최고의 음향을 자랑하는 클래식 전용 콘서트 홀(994석), 모든 장르를 수용하는 소극장 앙상블 시어터(378석)와 미술관, 아카데미(회원 1100명), 야외광장, 책테마파크 등을 갖추고 있다.

특히 공연장의 품격에 걸맞는 모차르트 페스티벌, 김수

진과 슈투트가르트 발레단의 ‘말괄량이 길들이기’, 영국 BBC 심포니 오케스트라 등을 기획해 서울을 물론 대전, 부산, 광주 등에서 관객들이 찾는 ‘전국공인연장’으로 자리잡았다. 개관이후 지난해까지 총 425만 명의 관객이 다녀갔다.

그렇다고 성남아트센터가 ‘지역’을 멀리 한 것은 아니다. 명품공연과 지역발착형 프로그램, 그리고 ‘착한 가격’으로 성남시의 문화허브로 자리매김해오고 있다. 오페라 컬럼니스트 박종호의 ‘오페라 글라스’, 주부관객들을 위한 ‘마티네 콘서트’(매주 셋째주 목요일 오전 11시), 지역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인들을 위한 ‘사랑방 아트홀’과 ‘사랑방 연습실’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지역의 문화유산을 스토리텔링한 뮤지컬 ‘남한산성’과, 악극 ‘모란이 꽃피는 시장’은 성남아트센터의 정체성을 잘 보여준다.

특히 오페라 하우스 50석, 콘서트 홀 30석, 앙상블 시어터 10석을 저소득층, 결혼가족, 소년소녀가장 등에게 무료개방하는 ‘문화공헌석’과 소외계층을 위한 연극 ‘만원 시리즈’ 등은 전국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다.

/성남=박진현 문화선임기자 jhpark@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취재 지원으로 작성됐습니다.